

공직 사회

'명퇴 바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원감축 등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광주·전남 공무원들의 명예

상반기 신청자 광주시 18명·전남도 92명... 작년보다 124% 늘어
연금법 개정판 수령액 감소·구조조정 등 신분 불안 때문인 듯

퇴직이 2배 이상 늘었다. 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예퇴직(1월~6월)을 신청해 공직생활을 마감한 공무원들은 광주 18명, 전남 92명 등 모두 11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시·전남도 명퇴자 49명에 비해 무려 12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일선 시·군을 통틀어 9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명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하위직이 69명, 5급 이상 간부는 2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4명으로 대부분이었다. 광주시 본청과 자치구도 지난해 15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광주·전남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70~80%가 공로연수를 선택했다. 정년 때까지 1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이처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공로연수기간에 연금법이 개정돼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작용한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주정·윤영기 기자 jnews@kwangju.co.kr



대학생 통일캠프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학생 통일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1일 오후 연천 태봉진당대를 방문해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해양수산에 6,489억 지원

광양·목포시항 등 개발 정부 시행계획 확정 전남도의 올 한해 해양수산 분야 총 국고지원액이 6천489억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확보와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지 구축 등 7개 분야 226개 사업에 6조2천356억원을 투자하는 '2008년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2004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연장선 세부 실천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9개 정부부처와 통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3개

기업도시 탄력 받는다

(우안, 영암·해남) **李 대통령 "균형발전 차원 특화정책 통해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시형작용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지부진한 모습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충북 충주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 "정부는 기업도시 사업의 앞뒤를 잘 살펴 시형작용이 없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며 "개개의 기업도시를 세심하게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연구, 산업,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기업도시 사업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업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화 정책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무안 기업도시와 영암·해남 기업도시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촛불 정국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문제 등으로 이반된 지방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다가 촛불 정국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업무보고는 이날 중순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

수도권 신단 조성 가능... 광주·전남 기업유치 빨간불 내년부터 밤 9시~오전 8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도의 기업유치에 약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등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

광주 도시가스 요금 동결

시, 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 서민경제 부담 줄여

광주시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양도시가스가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지난해 대비 m당 14.55원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검증요율을 발인 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m당 5.2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최근 물가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

사과 해명광고

본인은 지난 번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남대학교 신임섭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지단 성명서에 그분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을 늦게나마 해명하고 본인의 아니게 실례를 끼쳐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8년 7월 2일 국효문

정정 공고

본 회사는 2008년 6월 30일 자 자본감소공고 "금리유역"을 "금리유역"으로 "1주 2,000주"의 비율을 "1주 1,000주"의 비율로 "1주 80,000주"에 대하여 20,000주(총 78,000주)를 6,000주(총 84,000주)로 변경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2일 (주) 세강건설 대표이사 한용욱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삼진(490318-1624515)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재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도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가정지원 2008-나659호 공 고 인: 손이방자, 이오원, 이순원, 이상호 한정승인수리일: 2008. 6. 23 공고기간: 2008. 7. 02~2008. 9. 01 연락처: 순남빌딩 167호 2층 20080222 이상호 (010-9942-9827)

산행안내

7월 3일(목) ▲광주국립민속박물관 7월 3일(목)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7월 3일(목)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7월 3일(목)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7월 10일(목) ▲광주국립민속박물관 7월 10일(목)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7월 10일(목)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訃告

長興高氏 在職(前) 전남대학교 교수 서장정보대학장 以孝慮二〇〇八年六月三十日(陰五月二十七日)午後六時三十分 別世 茲以訃告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 328 상판결의 취지 및 이해관계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 1. 홍석재 2. 김윤제 위 피고인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08년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지대강 판사 전일호 판사 유화진

7월 8일(화) ▲광주국립민속박물관 7월 8일(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7월 8일(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7월 29일(화) ▲광주국립민속박물관 7월 29일(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7월 29일(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